

이름: _____

수험번호: _____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사람들은 흔히들 '내가 그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롭다'는 말을 하곤 한다.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인간인 나의 존엄을 확인할 수 있을 때이다. 나는 다니엘 미테랑을 통해서 그녀와 내가 같은 인류에 속한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부인 '세실리아'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대통령 부인 자리도 마다한 여인이다.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부인 '다니엘 미테랑'도 그녀 못지않은 자유의 여인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구가한 자유는 같은 자유인데도 엄연히 다른 자유처럼 느껴진다. '세실리아'는 확실히 신세대풍 자유를 구가하는 스타일인 것 같다.

'다니엘 미테랑'은 중국의 침공을 받은 티베트, 터키의 침공을 받은 쿠르드족, 이스라엘에 의해 제 땅에서 쫓겨난 팔레스타인 편에 섰다. 그녀는 불의 앞에서 분노할 줄 알고 그 분노를 대통령 부인 자리 혹은 프랑스 자유 재단 이사장으로서의 권위로 적절히 제어했다. 그리고 끈질기고 참을성 있게 차근차근 세상의 모든 불의를 향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반대 의지를 관철해 나갔다. 그녀는 스스로 억압당하면서 그것을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애정으로 확장하였다.

[제시문 (나)]

단순하지만 누를 길 없이 강렬한 세 가지 열정이 인생을 지배해 왔으니, 사랑에 대한 갈망, 지식에 대한 탐구욕, 인류의 고통에 대한 참기 어려운 연민이 바로 그것이다.

나는 사랑을 찾아 헤매었다. 그 첫째 이유는 사랑이 희열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얼마나 대단한지 그 기쁨의 몇 시간을 위해서라면 남은 생을 모두 바쳐도 좋으리라 종종 생각한다. 둘째 이유는 사랑이 외로움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성인들과 시인들이 그려 온 천국의 모습이 사랑의 결합 속에 있음을, 그것도 신비롭게 축소된 형태로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똑같은 열정으로 추구한 또 하나는 지식이었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보고 싶었다. 하늘의 별이 왜 반짝이는지를 알고 싶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를 이해해 보고자 했다. 그리하여 나는 많지 않으나 약간의 지식을 얻게 되었다.

사랑과 지식은 나름의 범위에서 나를 천국으로 가는 길로 이끌어 주었다. 그러나 늘 연민이 날 지상으로 되돌아오게 했다. 고통스러운 절규의 메아리들이 내 가슴을 울렸다. 굶주리는 아이들, 압제자들에게 핍박받는 희생자들, 자식들에게 미운 짐이 되어 버린 의지할 데 없는 노인들. 외로움과 궁핍과 고통 가득한 이 세계 전체가 인간의 삶이 지향해야 할 바를 비웃고 있다. 고통이 덜어지기를 갈망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 나 역시 고통 받고 있다.

이것이 내 삶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만일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다시 살아 볼 것이다.

수시 1차 면접 (2012. 10. 20. 오전)

<언어> 문제

1. 제시문 (가)에서 ‘세실리아’가 추구한 자유와 ‘다니엘 미테랑’이 추구한 자유가 각각 어떠한 것인지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설명하시오.
2. 제시문 (나)는 ‘버트란트 러셀’의 자서전 내용의 일부이다. 제시문 (나)의 ‘버트란트 러셀’과 제시문 (가)의 ‘다니엘 미테랑’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이름: _____

수험번호: _____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어린 동물들은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얻기 위해 사람이나 동료의 호의를 이용한다. 이런 것은 인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타인을 자기 뜻대로 부릴 어떤 수단도 갖지 못했을 때, 인간은 남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 온갖 아첨을 늘어놓는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 인간은 평생 몇 사람의 친구만을 만들 수 있을 뿐이다.

동물은 다 자라면 완전히 독립하여 다른 동물의 도움이나 원조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인간은 항상 동료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해 오직 동료의 자비에만 기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위해 동료의 이기심을 자극하고 자기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그들 자신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훨씬 낫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러한 모든 제의가 의미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호의의 대부분을 상호 간에 얻어낸다.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대한 그들의 관심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성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이기심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이익을 이야기한다.

[제시문 (나)]

한 천석꾼이 자기 재산을 대대로 물려주고 싶어서 9대째 천 석을 유지하는 경주 최 부자를 찾아갔다. 천석꾼은 자신을 당대 천 석하는 부자라고 소개했다. 그러자 최 부자는 그를 사랑채에 머물라고 하더니 때가 되어도 밥도 물도 주지 않았다. 천석꾼은 이렇게 야박하게 살아서 9대 동안 재산을 유지한 것이 아닌가 싶었다. 하루가 지나도 대접할 기미가 없자 천석꾼은 최 부자에게 이렇게 인색하게 살면서 9대 천 석을 지킨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자 최 부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대에 천 석을 했다기에 짐승처럼 재산만 불린 사람이 틀림없어 보여 그에 걸맞는 대접을 했던 것뿐이라고 하였다. 천석꾼이 최 부자에게 9대 동안 천 석을 지키는 비결을 알고 싶다고 하자, 최 부자는 밖에 나가서 물어보라고 했다. 그리하여 당대 천석꾼은 결국 최 부자 집에서는 물 한모금도 얻어먹지 못하고 근처 주막으로 찾아갔다. 천석꾼은 주막에 머물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최 부자가 9대 동안 천 석을 유지한 비결을 물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최 부자 집에서는 없는 사람에게 돈을 후하게 줄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으면 천 석만 가지고 나머지는 항상 풀어서 소작농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했다. 그래서 소작농들은 금년에도 최 부자가 논을 더 많이 사서 소작을 부칠 수 있게 해달라며 빈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대대로 땅은 넓어지고 천 석은 그대로 이어졌던 것이었다.

수시 1차 면접 (2012. 10. 20. 오후)

<언어> 문제

1. 제시문 (가)에서 인간이 동료의 협력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본문에서 제시한 방법 두 가지를 밝히시오.
2. 제시문 (나)에서 최 부자가 9대 동안 천 석을 유지한 이유를 제시문 (가)에서 말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두 가지 이상의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이름: _____

수험번호: _____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In the past 30 years, Americans—particularly young Americans—have become risk-averse and sedentary.* The timing is terrible. With a considerably high unemployment rate, young Americans are less inclined to pack up and move to sunnier economic climes.* The likelihood of 20-somethings moving to another state has dropped well over 40 percent since the 1980s, according to Census Bureau data. The proportion of young adults living at home nearly doubled between 1980 and 2008. Even bicycle sales are lower now than they were in 2000. Most startlingly, an increasing number of teenagers are not even bothering to get their driver's licenses. Back in the early 1980s, 80 percent of 18-year-olds proudly strutted out of the DMV* with newly minted licenses. By 2008, that number had dropped to 65 percent. Perhaps young people are too happy at home checking Facebook. A study of 15 countries found that when young people spend more time on the Internet, they delay getting their driver's licenses.

The Great Recession* and the still weak economy make the trend toward risk aversion* worse. Children raised during recessions ultimately take fewer risks with their investments and their jobs. Even when the recession passes, they don't strive as hard to find new jobs, and they hang on to lousy* jobs longer. Perhaps more worrisome, kids who grow up during tough economic times also tend to believe that luck plays a bigger role in their success, which breeds complacency.* They end up less adventurous and less willing to leave home because they believe that luck counts more than effort. Notice how popular the word "random" has become among young people. The word has changed from a precise statistical term to an all-purpose phrase that stresses the illogic and coincidence of life. Unfortunately, societies that emphasize luck over logic are not likely to thrive. Maybe it's time to pull out the power cords and pump up the flat bicycle tires—or whatever it takes to get the kids back on the road.

*sedentary 정적인 *clime 지역 *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The Great Recession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적 경기불황

*aversion 싫어함 *lousy 변변치 않은 *complacency 자기위안

<문제 1> 필자가 자전거 판매량과 운전면허 취득률을 언급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문제 2> 밑줄 친 "random"이라는 단어로 대변되는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해보시오.

이름: _____

수험번호: _____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controversial issue for many Americans is whether people who are known to be racist or to have other destructive views should be allowed to speak at public places like state universities. Even those who cherish the American Constitution and its guarantee of free speech have difficulty supporting free speech for bigots.* However, painful as it may be to accept, freedom of speech is an all-or-nothing proposition. You can't have freedom of speech for some people and not for others. If you ban unpopular people from speaking, you no longer have freedom of speech.

As the A.C.L.U.* has argued, the best way to respond to hatred and bigotry is to have more speech, not less. How this principle works in practice can be illustrated by an incident involving David Duke, a man who was once a leader of the Ku Klux Klan.*

In 1996, Duke was invited to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in order to debate affirmative action.* The invitation caused an uproar in both the university and the community. One local editorial labeled Duke's views beyond the limits of legitimate discussion. Even the governor of the state agreed that Duke's invitation should be withdrawn. Th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however, argued that public institutions must be places where all ideas can be explored. In addition, members of African-American organizations argued that Duke should be allowed to speak because they wanted the opportunity to challenge him in person.

As a result of those arguments, the debate took place. Even more important, it took place peacefully. Th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courageously held her ground in refusing to interfere with the students' decision to invite Duke to speak and thus refusing to limit one of the most precious rights. After all, once the first speaker is banned, it becomes a little too easy to ban the second. Hard as it is to accept, it's still true that "you either have free speech or you don't."

*bigot 편견이 심한 사람, *A.C.L.U 미국 자유 인권 협회

*Ku Klux Klan 백인우월주의 단체

*affirmative action 소수민족과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조치

<문제 1> 필자가 David Duke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문제 2> 밑줄 친 "you either have free speech or you don't."가 무슨 뜻인지 풀어서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해보시오.